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4. 17.(월)

## 김포골드라인 혼잡 개선을 위해 2주간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.

- 오늘부터 국토부, 김포시 합동으로 2주 동안 실시
- 평일 출퇴근 시간 승강장, 열차 혼잡상황과 운영사 안전관리 실태 점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출퇴근 시간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에 대해 오늘부터 2주 동안 김포시(시장 김병수)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.

□ 점검반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이성해) 광역교통운영국장을 반장으로 하여 매일 14명의 인원을 투입할 계획이다.

- 점검대상은 김포골드라인 10개 역 중 기점인 양촌역을 제외한 9개 역 승강장 등으로, 평일 출퇴근 시간(07:00~09:00, 17:30~18:00(김포공항역))에 역별 혼잡상황, 안전 위해요소, 운영사의 안전관리 인력 운영실태를 점검\*하고, 철도특별사법경찰대\*\* 4명을 투입하여 이용객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도 시행한다.

\* 점검대상 및 시간은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

\*\* 철도역 및 열차 내 범죄예방, 질서유지, 철도사고 수사 등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

□ 점검반장은 이날 출근시간 현장점검을 마친 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 운영(주)의 대표와 김포시 관계자를 만나 역사, 열차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,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혼잡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안석환 광역교통운영국장은 “김포 시민을 비롯한 이용객들이 김포골드라인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

혼잡상황과 안전조치 사항을 직접 면밀히 점검하여, 안전취약 요인을 찾아 신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<br><총괄> |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<br>광역환승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성민 (044-201-5130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곽병철 (044-201-5136) |

